

■ 2026 새해설계 우승희 영암군수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도시 육성…순환경제도 완성”

영암형 기본사회·정주환경 개선 등 5대 방향 제시
분산에너지·RE100 기반 중심 에너지신산업 육성

“지난 한 해는 무너졌던 일상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었고, 이제는 그 회복의 바탕 위에서 지역 성장을 만들어가야 할 때다. 주민의 삶에 가장 가까운 방식으로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곳에서 해답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새해 신년사를 통해 “중앙의 정책을 영암의 현실에 맞게 바꿔 제감으로 연결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 5년은 이 전환을 지역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며 “그동안 영암군정은 지속가능한 영암을 위한 기준을 세우는 데 힘써왔고, 당장 보기 좋고 먹기 좋은 떡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봐왔다”고 말했다.

이어 “때로는 돌아가는 길을 택했고, 불편한 결정도 피하지 않았다” “당장 좋아 보이는 정책보다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을 선택인기를 먼저 따져왔다”고 소회했다.

우 군수는 “농업이든, 지역경제든, 돌봄이든, 에너지든 군정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됐다”며 “행정적 편의가 아니라 군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선택인가, 그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도 마찬가지다. 열마를 쓰느냐보다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봤다”며 “그래야 정책이 한 해로 끝나지 않고, 군민의 삶 속에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우 군수는 “이 같은 선택의 결과가 지역순환경



제로 이어졌다. 월출페이와 소비 순환은 이제 군민의 생활 속에 자리 잡아 지역에서 쓰인 돈이 지역의 가게와 일자리로 이어지고, 다시 지역 안에

서 도는 흐름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정책 추진 결과를 제시했다.

우 군수는 군민의 삶에서 확실하게 제감할 수 있는 해로 만들어 에너지 생태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영암군의 2026년 군정 운영 5대 방향도 공개했다.

그는 “깨끗한 에너지로 산업을 전환하고, 그 성과가 군민의 삶으로 돌아오는 영암형 순환경제를 완성해 가겠다”며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마를 수 없는 과제로, 영암은 이 변화를 지역의 기회로 만들고자 한다. 분산에너지와 RE100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민참여형 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월출산과 영산강, 역사·인문 자산, 스포츠와 생태자원을 하나로 엮어 체류형 관광도시로 나아가겠다”며 ““2027년 영암 방문의 해”를 준비하며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확장하고, 축제와 대화, 문화행사가 지역 상권과 숙박, 소비로 이어지도록 구조를 다시 짜, 관광이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농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농가소득은 더 단단히 지키는데 앞장서고, 사람이 머무는 정주환경으로 영암의 생활 기반 조성. 지역이 책임지는 영암형 기본사회 완성을 통해 군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는 영암형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우 군수는 “저는 군정의 성과보다 평범한 군민 한 분 한 분이 ‘그래도 영암군은 믿을 수 있다’고 느끼는 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그 신뢰는 말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실행이 쌓여야만 가능하다. 대전환의 시대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영암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승희 군수는 “변화와 혁신의 흔들림 없는 군정 운영으로 영암을 더 크게 만들어가겠다”며 “군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행복한 영암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올 한 해도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을 위해 두박 두박 걸어가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원도군은 최근 전남도교육청과 교육자치협력지구의 원활한 사업 운영과 2026 Pre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완도, 전남교육청과 교육·산업 발전 ‘맞손’

교육자치협력지구·Pre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업무협약 체결

완도군은 최근 전남도교육청과 교육자치협력지구의 원활한 사업 운영과 2026 Pre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신우철 완도군수,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을 비롯해 김양훈 완도군의회의장, 이철영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의준 도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자치협력지구는 전남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건강한 교육 생태계 조성과 지역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업무 협약을 맺고 1대 1 대응 투자 협력 사업이다.

완도군은 오는 3월부터 2030년 2월까지 교육자치협력지구로 지정돼 전남도교육청과 군에서 매년 각 3억원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교육자치협력지구의 주요 사업으로는 민관·산학, 학부모, 관계 기관 등과 안정적인 교육 협력 체계 구축, 완도의 생태·문화·역사·특화 산업, 진로 교육 등 지역 연계 학교교육 지원,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등이다. 아울러 전남교육청은 오는 5월

2일부터 7일까지 개최되는 2026년 Pre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전남도의 유치원생,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군은 학생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행사 안내, 안전사고 예방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학교교육 지원과 민관·산학 협력 체계 강화로 지속 가능한 완도형 미래 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교육과 지역 산업·관광을 연계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과 Pre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를 통해 아이들이 지역의 가치를 배우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남교육청과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강진, 유기농 ‘음악 듣고 자란 쌀’ LA 첫 수출

영동농장 10t 출항…총 100t 계약 순차 미국 선적

강진군의 유기농 쌀이 미국 LA 프리미엄 마켓에 진출하며 쌀 시장 판로 확대와 함께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6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신전면에 있는 영동농장영농조합법인에서 지역 농업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1차 산업(농업) 분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벼·월예·축산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농업인 12명과 강진군수가 참석해 강진군 농업의 다양성과 발전 방향 및 유통판로 확대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사항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농업 발전과 지역 상생을 다짐한데 이어, 영동농장영농조합법인의 유기농 ‘음악 듣고 자란 쌀’ 미국 수출 현황을 함께 지켜봤다.

이번에 상차한 쌀은 엄격한 기준의 USDA(미국 농무부) 유기농 인증을 받은 쌀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프리미엄 유기농 마켓인 에러한 마켓으로 수출된다. 백미 7t, 현미 3t으로 총 10t의 쌀이 부산항을 통해 미국으로 보내진다.

이번 수출은 총 100t 규모 수출 계약의 첫 물량으로, 향후 추가 선적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gwangnam.co.kr

무안, 군어 ‘낙지’ 공식 지정…해양자원 브랜드화 기반 마련

무안군은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낙지’를 군어로 공식 지정하고, 군어 활용과 관리를 위한 ‘무안군 군어(郡魚) 지정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무안군은 낙지를 활용한 관광·문화·수산업 연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조례에는 낙지를 활용한 캐릭터 개발·홍보 등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비롯해 군 상징물 사용 시 승인 절차와 사용료 규정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상징물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군 이미지 관리와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를 도모할 방침이다.

허동식 군 해양수산과장은 “무안 낙지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대표 수산물로, 지역 정체성과 관광 경쟁력을 함께 담고 있는 자산이다”며 “이번 군어 지정을 계기로 낙지 자원의 보전과 활용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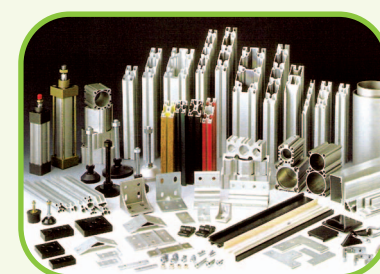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37년 기술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및 특수벨트 가공전문

오양물산



· 본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534-26(장덕동) · 제2공장 :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2번로 125(하남동)
· Tel : 062)953-0006 · Fax : 062)955-0030 · URL : http://www.oyangms.com



오양물산주식회사
O-YANG PRODUCT CO., LTD.